

‘자비신행회 나눔센터’ 광주 제봉로에 문 연다

2층 1322㎡ 규모... 무료식당·사찰음식체험관·카페 등 운영
개관 기념 ‘행복 토크’ 진행 원영·정목·금강·혜민 스님 참여

최근 전남여고 인근을 지나가다 보면 멋진 한옥지붕과 전면 유리를 설치한 신축 건물을 볼 수 있다. (사)자비신행회가 마련한 ‘자비신행회 나눔센터’(광주시 동구 제봉로 134)다.
지난 1999년 발족한 자비신행회는 지역 대표 사회복지단체다. 불교 신도 5명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자비의 도시락’을 시작으로 이동무료급식봉사, 빨래차, 미용서비스, 초등생 대상 소원우체통, 공부방 등으로 점차 활동을 확대했다. 대표사업인 무료식당은 처음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다가 청소년, 취업 준비 청년에게까지 작은 손길을 내밀었다.



원영 스님

정목 스님



금강 스님

혜민 스님

국가나 지자체, 특정 사찰 지원 없이 회원들과 지역인 기부,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약 500명, 지출한 후원금만도 6억 5000만원에 이른다.

‘자비신행회 나눔센터’는 지역 대표 사회복지단체다. 불교 신도 5명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한 ‘자비의 도시락’을 시작으로 이동무료급식봉사, 빨래차, 미용서비스, 초등생 대상 소원우체통, 공부방 등으로 점차 활동을 확대했다. 대표사업인 무료식당은 처음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다가 청소년, 취업 준비 청년에게까지 작은 손길을 내밀었다.

지역 중견 건설업체의 지원으로 신축한 나눔센터는 2층 1322㎡(400평) 규모로, 무료 식당·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카페(1층), 한꽃차문화이카데미, 다문화사랑방, 한꽃선방 등으로 구성된다.

13일 방문한 나눔센터는 한창 집기와 시재료를 정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12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널찍한 메인홀이다. 기존처럼 어르신,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단순한 한끼가 아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방도 1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넓은 구조였다. 모든 음식은 직접 만들고 일체 화학조미료는 사

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동구 서석로 보성빌딩 1층에 있던 ‘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이 옮겨왔다. 10개 조리대를 설치해 40명이 음식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건강식 조리법 강좌, 다문화 가정대상 한국 요리 체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페는 일단 이용객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전장을 수목 매화그림으로 장식한 계단을 지나 2층에 들어서면 테이블 5개가 놓여있다. 다문화가정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다문화사랑방이다. 또 다도(茶道)에 대해 알려주고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꽃차문화이카데미 공간과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조성했다. 한편에는 조용히 머물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한꽃시민선방도 운영한다. 2층 공간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 외에는 사전에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관에 맞춰 불교계 스타 스님들이 참여하는 열린 강좌 ‘4분의 스님에게 듣는 부처님의 지혜-행복 토크’도 마련했다. 오는 24일 원영 스님이 들려주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을 시작으로 7월1일 정목스님의 ‘꽃도 꽃 피우기 위해 애를 쓴



오는 16일 개관하는 광주시 동구 전남여고 인근에 자리한 ‘자비신행회 나눔센터’.



차 문화강좌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 장소로 사용되는 ‘한꽃차문화이카데미’ 공간.

다, 7월8일 금강스님의 ‘물 흐르고 꽃은 피네’, 7월15일 혜민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진행한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는다.

문의 062-234-009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희의 문화카레

문득 오래전 진한 여운을 남긴 음악영화 한편이 떠오른다. 성격과 배우로 유명한 더스틴 호프만이 메가폰을 잡은 ‘콰르텟’(Quartett·2013년 작)이다. 당시 영화홍보사는 은퇴한 4명의 원로 예술가를 통해 황혼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영화를 관람한 나는 영화사가 홍보의 콘셉트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생각했다. 나이를 잊은 그들의 치열한 예술혼에 더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관객을 위해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송고함 마저 느꼈다. 예술가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 시절의 프리마돈나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소프라노 진의 반대 때문에 음악회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된다. 그녀가 빠진 콘서트는 흥행을 보장할 수 없어 동료들은 긴 설득을 펼치고 마침내 무대에 오르게 된다. ‘콰르텟’ 공연에 관객들의 갈채가 쏟아진 건 물론이다. 영화는 어쩌면 마지막 무대가 될지 모르는 주인공들의 연습과정을 리얼하게 그려냈다. 눈을 침침하고 목소리도 예전같지 않은데도 장시간 서있기도 힘들다. 하지만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투혼을 불태운다.

앞으로 광주시립예술단 단원의 학원출신이나 개인교습을 통한 영

시립예술단, 이번엔 변할까?

제목 ‘콰르텟’(4중주)에서 알 수 있듯 주인공은 한때 유럽 음악계를 쥐락펴락한 4명의 성악가다. 은퇴한 음악가들의 안식처인 ‘비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함께 스크린에 잔잔하게 펼쳐진다.

아주 오래전, 실연의 상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테너 레지, 플레이보이 기질이 다분한 베이스 윌프, 이젠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된 순수한 알토 씨씨, 한때 화려한 명성을 날리며 환상의 화음을 자랑하던 전설의 오페라 가수들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현역에서 은퇴한 이들은 비참하우스에 모여 ‘어제가 오늘 같은’ 평온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스타 소프라노 진이 새 식구로 입주하면서 무료했던 이들의 일상에 활력이 감돈다.

인생의 3막장을 맞은 이들은 보금자리인 비참하우스가 재정위기에 처하자 후원금 모금을 위해 갈라콘서트를 계획한다. 하지만 전성

리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립단원은 영리행위에 따른 직무능률 저해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학원 진학과 외부출강도 공연과 연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이는 일부 단원이 암암리에 개인교습이나 강의를 이유로 연습을 소홀히 하는 등 시립예술단의 역량을 저해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립예술단은 한 도시의 문화수준과 품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 때문에 최고의 기량만이 살아남는 공연계 풍토와 달리 일부 단원의 단일한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지역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립단원’의 자부심은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내는 ‘최고의 무대’에서 나온다. ‘시립’이란 타이틀에 안주하는 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게’ 통하던 시대도 지났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22일 ‘섬진강 유역 역사문화유산 보존...’ 심포지엄

‘제29회 향토문화연구 심포지엄’이 ‘섬진강 유역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22일 오전 10시 광양 호텔 부루나 그랜드볼룸홀(광양읍 백운로 2)에서 열린다.

주제발표는 이윤선목포대 교수의 ‘섬진강 유역의 민속문화유산’을 시작으로 ‘고대(선사)문화유산’(이동희 인제대 교수), ‘전통건축(누정) 문화유산’

(전득영 전남대 교수), ‘역사문화유산 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최인선 순천대교수)이 이어진다.

최인선 교수는 좌장을 맡는 종합토론회에는 주성재 곡성군의원, 박병섭 순천여고 역사교사, 한장원 구례문화원장, 정희기 광양문화원 광양학연구소장이 참여한다. 문의 061-284-102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첼리스트 박경옥 독주회

내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베토벤 첼로 소나타 4번 등 연주

첼리스트 박경옥(사진)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박씨는 서울예고, 서울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미국 예일대학원을 거쳐 뉴욕 주립대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8년 귀국 후 부천시향 첼로 수석 역임한 그녀는 서울시향을 비롯한 국내외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동아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국제브람스음악콩쿠르 등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솔리스트, 협연자, 실내악 주자로 왕성한 연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박씨는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피아니스트 김강운과 함께 베토벤 ‘첼로 소나타 4번’, 슈만의 ‘판타지’, 라흐마니노프의 ‘첼로 소나타’를 연주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김강운은 뮌헨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브람스 국제콩쿠르 1위, 독일 ARD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예 연주자다. 티켓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향동 전통음식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